

80년 5월 사라진 5·18행불자들 어디에?

옛 광주교도소 부지 유골 40여구 추가 발견...암매장 의혹 재부상

“동생의 뺨 조각이라도 꼭 찾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관련 제보가 집중됐던 옛 광주교도소에서 기록되지 않은 신원미상 유골 수십구가 발견됨에 따라 5·18 행불자의 암매장 추정 장소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1980년 5월 이후 사라진 가족을 애타게 기다려 온 행불자 유가족들은 유해만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재발굴 등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5·18단체 등에 따르면 1980년 5·18 이후 5·18행불자 신고는 448건(중복 건수 포함)으로 242명에 달하지만, 심사를 거쳐 관련자로 인정된 이는 84명 뿐이다.

84명 중 지난 2002년 5·18국립민주묘지 무연고 분묘에 매장된 11구의 유골과 행불자 유가족의 유전자 감식결과를 비교해 신원이 밝혀진 희생자는 6명으로 아직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식적인 행불자는 78명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까지 4차에 걸쳐 암매장 추정지 11곳에 대해 발굴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5·18 행불자를 찾지는 못했다. 1차 발굴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이듬해 5월 16일까지 소촌동 공동묘지, 삼도동 야산 무연고 분묘, 화정동 국군통합병원 담장 밑, 군 공항 인근 황룡강 제방, 상록회관 주변 도로 등 5곳에서 진행됐다.

소촌동에서 1기, 삼도동에서 9기 등 유골 10기가 나왔으나 모두 5·18 유가족과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고, 황룡강 제방과 상록회관 주변에서는 동물 뼈 20여점만 발견됐다.

2차 발굴은 문화예술회관 뒤편, 장동동 야산, 주월동 아파트 건설 현장 등 3곳에서

공식 인정 행불자 84명

9곳 발굴 했지만 78명 못찾아

“뺨 조각이라도 찾아야...”

유가족들 추가발굴 요구

2006년 2월 24일부터 다음 해 12월 30일까지 진행됐다. 그 때에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유골 137기가 발견됐지만 모두 5·18 행불자와 무관했다.

3차 발굴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북구 효령동 야산내 묘지 조성지역 2곳에서 이뤄져 유골 3기가 나왔으나, 이 또한 행불자와 관련이 없었다. 4차 발굴은 2017년 11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문흥

동 옛 광주교도소, 광주~화순간 옛 너릿재 터널 인근에서 발굴 조사를 벌였지만 유해를 찾지 못했다.

4차 발굴지 외에도 대표적 암매장지 제보는 송암도 오수처리장, 상무대 기갑학교, 화순 너릿재, 담양 금성 학동리 야산, 광주공원 충훈탑 인근, 담양군 고서면 후산리 연동마을, 효천 철도건설복 인근, 지원동 2순환도로 터널 인근, 무등광생원 야산 능선 등이다.

4차 발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실의에 빠져 있던 행불자 유가족들은 그동안 가장 많은 제보가 있었고 암매장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옛 광주교도소내 공동묘지 부지에서 신원미상 유골이 40여구나 발견되자, 잃어버린 가족의 유해가 있지 않을까 실낱 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행불자 유가족들은 이번 유해발굴을 계기로 각종 관련자료를 조사·분석한 뒤, 실제 계엄군이 시민을 살상한 장소와 관련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암매장지 발굴작업 등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1980년 5월 19일 아침밥을 먹고 나간 뒤 행방불명된 정복남씨의 형 정옥남씨는 “아직까지 동생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어디엔가 살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뺨 조각이라도 찾아야만 이 고통을 멈출 수 있을 듯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서 적극적으로 행불자 암매장지 조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대 법의학교실은 5·18 행불자 신고를 한 130가족 295명의 혈액을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유골은 이 혈액의 DNA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김오수 법무부장관 대행(맨 왼쪽)이 20일 광주시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부지 유골 발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경찰 조사, 사건관계인 동의편 조서 작성 과정 모든 진술 녹음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조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의 진술이 녹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진술녹음제도를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조서를 작성하기 전 사건 관계인에게 진술 녹음의 취지와 용도, 폐기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동의를 받아 녹음된 진술 파일은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보내져 보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강경진압 거부 故이준규 목포서장 국립묘지 이장 추진

연내 순직 국가유공자 신칭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한 고(故)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국립묘지 이장이 추진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서장 유족은 그를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실 수 있도록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연내 국가보훈처에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 서장 유족을 도와 국가보훈처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서장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며 “앞서 국가보훈처가 이 서장을 5·18 민주 유공자로 결정했고, 법원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는데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서 내에서 시민에게 발포하지 말고 구내방송을 하고 무기를 반환하도록 시민 세력을 설득해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3개월간 구금·고문당한 뒤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암으로 사망, 천안공원 묘원에 안장됐다.

당시 군사재판은 이 서장에게 징역 1년 선고유에 처분을 내렸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경찰청은 이 서장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날 말 인사혁신처의 최종 재가를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8 해질 17:25 달뜨기 04:12 달지기 15:12

마스크 착용하세요

대기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광주	구름많음	0/10	보성	구름많음	-1/10
목포	구름많음	4/9	순천	구름많음	0/11
여수	맑음	4/11	영광	구름많음	2/8
나주	구름많음	-2/10	진주	구름많음	3/10
완도	구름많음	4/11	전주	비운위권	2/8
구례	구름많음	-1/9	군산	흐리고비/눈	4/8
강진	구름많음	-2/11	남원	구름많음	-3/8
해남	구름많음	-1/10	축산도	구름많음	8/10
장성	구름많음	0/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북)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남)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서부	안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 생활지수

높음	☀
감기	☁
높음	☁
뇌졸중	☁
니뽀	☁
미세먼지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41	11:58
17:24	--:--	
여수	00:22	07:08
	13:06	19:06

◇ 주간 날씨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1(월)
☀	☁	☁	☀	☀	☁	☁
0/11	1/11	4/6	0/6	-2/8	2/9	4/10

전남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829명 정기인사

전남도교육청은 일반직 공무원 829명에 대한 2020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지난 20일 단행했다. <인사 명단 22면>

승진은 3급 1명·4급 7명·5급 29명·6급 67명·7급 66명·8급 1명 등 171명이다. 전보 392명·공로연수 정년(명예)퇴직 등 200명·신규임용 66명 등 모두 829명이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

3급 나주공공도서관장은 김성태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이 승진 임용됐다. 정미라 영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정책기획관 대외협력팀장에, 변은

섭 교육과정과 교육협력팀장은 정책기획관 교육협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사무관 7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29명이 5급으로 승진했고, 김경희 함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목포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5급 35명이 전보됐다.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은 “조직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혁신전남교육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교육시민참여단 ‘스쿨 미투 대응’ 4대 원칙 제시

광주 교육시민참여단은 “최근 ‘스쿨 미투 대응 권고안’을 마련해 장항국 교육감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시민참여단의 첫 권고안으로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겼다. 시민참여단은 학생·학부모가 스쿨 미투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조사기구를 마련하

도록 했다. 시민참여단은 또 속의를 통해 성 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매뉴얼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8월 22일 스쿨 미투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10차례 논의와 3차례 전체 속의를 거쳐 권고안을 확정했다.

민중참여단은 또 속의를 통해 성 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매뉴얼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8월 22일 스쿨 미투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10차례 논의와 3차례 전체 속의를 거쳐 권고안을 확정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